

불자 세상보기

함께 행복해지는 삶, 함께 부처되는 삶



석길암 금강대 인문한국(제) 연구센터 교수

최근 손에 잡고 있는 화두가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해져야 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우리 대부분은 내일의 행복을 기대하며 오늘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 대부분은 내일의 안온함을 기대하며 오늘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생각의 저변에는 '내일은 좋아지지 않겠지.' 하는 기대가 깔려 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을 버티기는 하지만, 과연 내일은 좋아질까 하는 불안감이 설 새 없이 엄습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필자는 그런 생각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가 내린 화두의 결론이다. 도대체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내일을, 아니 당장 오늘을 살아갈 삶의 밑천이 없는 까닭이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을 버리게 만들지만, 오늘 그리고 지금의 행복은 지금의 삶과

그리고 내일의 삶도 미리 장밋빛으로 바꾸어놓는 마술을 부리기 때문이다.

불교는 내일을 기약하는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 수많은 선사들이 '지금 당장' '여기에서' 를 의치신 까닭이 여기에 있다. 불교는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행복을 말한다. 그래서 내일의 살아가는 조건을 바꾸는 것 못지않게 오늘 당장의 살아가는 조건을 바꾸는 데도 열심인 종교가 바로 불교이다.

일체중생살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라고 한다. 누구나 부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로 알아듣는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사실은 '당신은 이미 부처인데 왜 부처답게 살지 못하느냐'는 이야기이다. 부처는, 간단히 말하자면, 일체의 고통을 떠난 존재이고, 일체의 고통을 떠나는 방법을 가르친 스승이다.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왜 부처인 당신이 부처답게 살지 못하느냐고?

우리는 그 다그침을 살짝 외면한다. 어떻게? '저는 아직 중생인데요.'이다. 중생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말 속에, 나는 아직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나는 아직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거

기에는 내가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 존재이고, 내가 보살핌을 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은 조금도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내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고, 내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인색하다. 이래서야 불자가 아니고 중생투성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우리는 그 타성에 젖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다. 중생이 중생처럼 사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생각에 한줌의 부끄러움도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불교는 '일체중생살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라 가르친다고 거리낌 없이 뱉어낸다.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누구나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누구나 이미 부처라고 가르친다. 부처인데 왜 중생처럼 사느냐고 다그친다. 그럼 부처와 중생은 무엇이 다를까? 부처는 한량없이 나누는 존재이고, 중생은 나누는데 한량없이 인색한 존재라는 점이 다르다. 나누고 사는 것이 부처라는 얘기이다. 신통력을 부려 한 방에 내 문제 당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처가 아니다. 지금 처해있는 조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최대한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부처라는 이야기이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 마음나눔 못지않게 물질나눔도 중요하다. 종교는 고래로 그러한 마음나눔과 물질나눔의 마지막 안전판 노릇을 역사 속에서 해왔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늘날에는 그 마음나눔과 물질나눔의 많은 조건을 국가와 제도가 대신한다. 그렇지만 국가와 제도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고 놓치는 부분 역시 적지 않다.

적어도 불자라면, 국가와 제도 그리고 사회가 나눔을 제대로 하도록 감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불교답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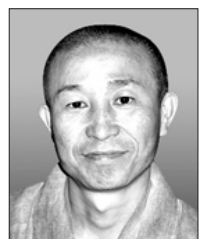
오늘 행복하지 못한 내일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의 지이다. 오늘 행복해져야 내일도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나누어 받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마음어른 물질어른 먼저 앞서서 나누어주어! 오늘 행복해지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지금 눈앞에 닥친 팍팍한 삶도 마찬가지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나누고 헤치고 바꾸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부처다.

발언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 이후에도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47명의 필진을 확정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진보·보수·중립 진영 패널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진영싸움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도법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

진정한 사실과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불행하게도 우리 현실은 사실과 진실을 물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결과 불이 났는데도 불을 끄려고 나서서 사람이 없다.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 그 출발은 사실과 진실을 묻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죽음을 다하여 사실과 진실을 물어야 한다.

역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잘라낼 수도 없고 잘라내려고 해서도 안된다. 누군가 역사를 잘라내려고 한다면 그는 삶을 통째로 파괴하고 부정하는 사람이다. 마땅히 역사는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만일 누군가가 드러난 사실과 진실을 부정하고 자기주장을 한다면 그는 진정한 우리 국민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온 명백한 진실인 우리 역사를 보편적 상식인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잘 드러내고 그 진실을 균형 있게 기술해야 마땅하다. 그 길만이 우리 삶과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념싸움, 진영싸움을 끝내는 분명한 길이다.

국정화, 민주주의에 배치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의 건강한 상식과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이다. 역사 관점을 획일화하고 다른 생각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다양성과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더 두려운 것은 만약 이 문제가 가 이대로 진행되어 국정 교과서가 나왔을 때 이야기 될 혼란과 부작용이다. 아이티 문명과 문화의 시대에 흘러넘치는 정보에 과잉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확인된 역사를 강요하는 것은 현재의 교사와 학생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 안타까운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정치적 진영논리로 빠져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연명총이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내용과 상관없이 나누어지는 현상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내용의 중요성이 진영에 갇혀버려 왜곡되기 때문이다.

더 넓고 크게 멀리 바라보며 편협한 것에 목숨 걸지 않길 바란다. 진영의 논리로 가지 않길 바란다. 다른 것에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 그저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길 바란다.

역사교과서 좌편향이 문제다



서경석 목사

국정화 문제는 본질적 이슈가 아니다. 진짜 이슈는 현재 검인정 교과서가 좌편향이나 아니냐, 좌편향의 정도가 국정화를 할 정도로 심각하냐 아니냐가 이슈다.

현재 국정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검인정 교과서의 좌편향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부분적 수정이 불가능하고, 통째로 다시 써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관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에는 좌파적 역사관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후의 역사발전은 보며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바른 역사책을 쓸 것인가를 경쟁해야 한다. 제일 먼저 역사전쟁에서 정치권은 빠져야 한다. 그 대신 학계의 역사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좌파가 주장하는 '대안교과서'를 찬성한다. 이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좌파 역사학계에서 훌륭한 대안교과서를 만들어 이 역사전쟁에서 승리하길 바란다.

社說

도봉서원 복원 불교계와 협의해야 된다

3년전 도봉구가 도봉서원 복원을 하면서 벌인 발굴 조사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국보라 해도 손색 없는 불교 유물 77점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유교 서원터에 불교 사원의 유물이란. 이유가 있었다. 도봉서원은 정암 조광조를 추모하고자 선조 6년(1573) 창건됐다. 하지만 고종 8년(1871)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명맥이 끊겼고 1972년 일부가 복원됐다. 이 도봉서원은 영국사라는 절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 유물이 나온 곳은 큰법당으로 추정되는 중심 건물이다. 출토 당시 유물들은 대형 청동술에 담겨 있었다. 불교계는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으로 유림이 영국사를 훼손하고 도봉서원을 세운 증거라고 해석한다.

불교계는 도봉서원의 복원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지난 8월 27일 서울시와 문화재청, 도봉구청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해 사원의 존재를 의문한채 서원을 복원하는 계획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면 보류된 도봉서원 복원사업이 최근 불교계와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도봉구청측에 따르면 불교계를 배제한 채 12월 7일 이와 관련된 학술세미나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불교계에서는 끈질기 않은 시선이다. 순수한 학술 목적의 세미나가 아니라 복원 타당성을 관계기관에 홍보하기 위한 의도적이라는 여론몰이용 이벤트가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유교계는 분명 이 곳이 고려시대 중요한 사찰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도봉서원 복원사업은 전면 재검토되고 이에 앞선 철저한 연구 및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영국사의 존재가 다시 묻히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교과서 불교 서술 확대 환영한다

2017년부터 적용되는 역사·도덕교과서의 불교 서술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본지가 입수한 교과서 집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삼국시대' 단원에서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불교수용 사례가 자세하게 서술될 전망이다고 한다. 특히 '불교가 수용되어 중앙집권국가의 새로운 이념이며 종교로 기능하게 되는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 서술한다'고 집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삼국이 왕권 강화에 함께 불교가 중앙집권체제 성립에 끼친 영향을 인정받게 됐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도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 고려시대의 경우 불교·유교문화의 특징과 다양성을 별도의 소단원으로 구분했다. 이 단원에서 눈에 띄는 집필기준은 '천태종의 성립과 결사운동·조계종의 발달에 대하여 서술한다'는 대목이다. 현행 교과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으로 학생들이 한국불교의 역사적 기반이었던 양 종단의 활약상을 배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도덕교과서에서 불교사상의 특징을 △연기적 세계관 △주체적 인간관 △평등의 세계관으로 정의해 모호함을 나타냈던 부분은 '자비의 윤리'로 변경됐다. 또한 한국불교의 특징은 통불교적인 관점에서 화쟁 사상과 선교 통합이 강조되도록 서술했다. 이는 그간 불교계가 제시한 대안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학생들이 불교의 인간관 및 세계관을 탐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교과서 서술 변화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산하 '조종교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의 제안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가져온 성과이다. 그동안 교과서 불교서술의 오류를 주제로 한 공청회 개최, 교육부 및 국사편찬위원회에 개정방안 담은 기간지 발송 등 교과서 불교서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교과서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지식 기준이다. 교과서 내 불교 서술에 대한 부분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 만 하다. 집필 기준에 따른 양질의 교과서가 발간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 (02)2004-8200 / 대표팩스 (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국,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서 얻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빛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